

미·중 전략대화와 미중관계의 전개

한석희 (연세대학교 교수)
shan65@yonsei.ac.kr

미국과 중국은 2012년 5월 3-4일 중국의 북경 다오위타이(釣魚台) 국민관에서 제4차 미·중전략경제대화를 개최하였다. 예년과 같이 미국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특별대표로 참석했고, 중국측에서는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G2시대를 대변하듯이 미·중 양국은 쌍무적·지역적·세계적 이슈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하여 다각적인 협의를 하였으며, 경제와 전략의 두 분야로 나뉘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미·중 양국은 전략경제대화를 지속함으로써 양국 간의 전략적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의 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세계 번영과 안정에 기초가 되는 상호공존의 모델을 모색해가고 있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배경검토

미·중전략경제대화는 2009년 4월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의 합의에 의하여 시작된 양국 간의 고위급 대화체로서 매년 1회 양국 수도를 번갈아 가면서 열리고 있다. 원래 미·중간의 대화기제는 부시정부 시절에 이미 시작된 바 있으며, 당시에는 안보문제를 다루는 고위급 대화(Senior Dialogue: SD, 2005년 시작)와 경제문제를 다루는 전략적 경제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 SED, 2006년 시작)로 분리되어 대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함께 양국은 효율적인 관계증진을 위하여 이 두 대화를 하나로 재구성하고 수준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면서 양국 간의 상호 협력적 틀을 좀 더 구체화하고 현실화하였다. 즉 과거 부장관급이 대화를 주도했던 기존의 전략적 경제대화와는 달리 2009년

부터 안보와 경제에 대한 결정권 및 포괄적 재량권을 가진 장관급·부총리급 인사들이 각국을 대표하여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본격적인 대화기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중전략경제대화는 2009년 4월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의 합의에 의하여 시작된 양국 간의 고위급 대화체로서 매년 1회 양국 수도를 번갈아 가면서 열리고 있다.

올해로 미·중전략경제대화는 4회째를 맞고 있다. 또한 매년 각 회의에서는 개최 당시의 주요 이슈들을 양국이 충실히 토의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2009년 제1차 미·중전략경제대화는 7월 26-28일 워싱턴에서 열렸으며 이 회의의 주요 논의주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회복이었다. 따라서 이 대화에서 양국은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였고 개방적인 무역 투자 및 보호주의 배격, 건실한 금융시스템 구축 등의 이슈를 주요주제로 다루었다. 또한 전략부분의 주제로서 부시정부 말기에 중단되었던 양국 간의 군사교류 강화, 인권 관련문제의 협력제고 방안 논의, 기후변화 및 신에너지 분야의 협력 등이 포함되었다. 물론 많은 이슈영역에서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연례회의 성격의 미·중전략경제대화를 성공적으로 시작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대화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제2차 미·중전략경제대화는 2010년 5월 24-25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당시에는 세계금융위기를 겪은 지 6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으로 주요 주제는 출구전략 도입 문제였다. 회의에서 양국은 세계경제회복이 아직 좀 느리고 일부 유럽국가들의 채무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출구전략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미·중간 무역불균형 해소방안,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문제, 천안함 사태, 이란 제재문제, 환경과 에너지, 해양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상호 보호무역을 경계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 합의했던 반면,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던 위안화 절상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찾지 못하였다. 또한 전략부분에서도 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미국이 한국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반면, 중국은 일단 냉정과 절제를 강조하는 기존의 신중함을 그대로 유지해 절충안을 만들어 내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중전략경제대화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미·중 양국은 모든 문제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진 못했지만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양자가 솔직하게 토론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2차 미·중전략경제대화를 상당히 성공한 대화로 평가하였다.

제4차 미·중전략경제대화는 2012년 5월 3-4일 중국 북경에서 거행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화는 생각지도 않게 일어났던 천광청(陳光誠) 사건으로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확산되었다.

2011년 5월 9-1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차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다루는 주제가 상당히 포괄적이었다는 점이다. 우선 제3차 대화에서는 전통적인 논의주제였던 경제, 금융, 환경, 인권 이슈에 군사·안보 이슈가 새로 추가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이 다루어지게 되었다. 미·중 양국은 회의에서 48개항에 대한 성과를 얻었으며, 그 중 주목을 끌었던 주요쟁점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의 인권문제이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실태가 최근에 더 악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인권문제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중국은 이미 인권분야에서 나름대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미국의 인권압박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미·중 양국 간의 위안화 환율 논쟁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수출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중국이 부적절한 위안화 환율로 자국 기업에 사실상의 수출보조금을 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조속한 환율평가절상을 요구했던 반면, 중국은 위안화 환율결정은 중국의 주권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의 입장에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이다. 중국은 미·중간 무역불균형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체제를 지적하면서 미국에 대한 경제적 도전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주요쟁점

제4차 미·중전략경제대화는 2012년 5월 3-4일 중국 북경에서 거행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화는 생각지도 않게 일어났던 천광청(陳光誠) 사건으로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확산되었다. 2012년 4월 말, 중국의 시각장애 인권변호사 천광청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빠져나와 베이징의 미 대사관으로 들어갔고 陳의 미국망명 가능성 때문에 양국은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물론 천광성의 미국유학 결정으로 양국 간의 대립은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중국의 인권문제는 이번 대화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실제로 이번 전략대화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양국 현안에 집중하기 보다는 다양한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틀을 짜는데 더 주력했던 것 같다. 우선 중국은 그간 상당히 민감하게 처리해 왔던 인권문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리기로 합의하고 2012년 7-8월경 미·중인권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북한 핵 문제 및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역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태 주요현안 사무협상'을 올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시리아 유혈사태와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동 사무협상'도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협상에선 양국 차관급 이상 관리들이 모여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중재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위안화 환율문제와 무역수지개선, 시장개방문제는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환율과 금융 개방 등 주요

현안에서 협조하면 중국이 원하는 미국 기술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최근 2년간 중국이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을 13% 절상하기는 했지만 환율절상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점이 미국의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위안화 환율 일일 변동폭을 0.5%에서 1.0%로 확대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금리 자유화 문제에서도 미국이 예금금리 자유화에 관심을 보인 데 대하여 대출금리를 먼저 풀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중국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무역 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수입확대 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과 동시에 미국의 첨단기술제품 수출제한을 비롯한 각종 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이번 대화에서 눈에 띄는 요소는 중국이 G2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C2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다이빙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중국과 미국이 세계를 주재한다는 함의를 갖고 있는 ‘G2(주요 2개국)’ 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C2’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대화에서 눈에 띄는 요소는 중국이 G2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C2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다이빙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중국과 미국이 세계를 주재한다는 함의를 갖고 있는 ‘G2(주요 2개국)’ 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C2’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C’의 개념에 대하여 협력(cooperation)과 조정(coordination)은 물론 공동체(community)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향후 두 나라가 이를 실천하면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나, 미국 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동의와 상관없이 중국이 G2를 대신하는 C2의 개념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향

후 미·중관계에서 미국의 의지와 제안을 따라가기 보다는 중국 나름대로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자신들의 확고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양국 간에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모두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양국이 갈등적인 이슈들을 일단 의제로 놓고 대화한다는 그 자체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결론적으로 볼 때, 미·중전략경제대화는 전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미국과 중국이 매년 모여 다양한 국제이슈들을 협의하는 대화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확실히 가장 영향력 있는 대화체라고 볼 수 있다. 또 4차에 걸쳐 매년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볼 때,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도 이 대화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양국 간에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모두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양국이 갈등적인 이슈들을 일단 의제로 놓고 대화한다는 그 자체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차에 걸친 미·중전략경제대화를 검토해 볼 때, 미국과 중국이 전략경제대화를 통하여 기대하는 발전방향이 꼭 같은 것만은 아니다. 미국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중국을 자신들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틀 속으로 편입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자신들의 특수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은 전략경제대화를 통하여 협력을 도모하고 대립 및 갈등을 조절하면서 쌍무간의 이슈와 국제사회의 이슈를 모두 다루어 가겠지만, 양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 때문에 양국은 당분간 제한적인 협력에만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